

전북 농촌유학 “대체로 만족”

도교육청, 농촌유학 설명회 열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선생님이 매일매일 제 이름을 불러 줘요. 제가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집에서 맘껏 뛰어다녀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일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3 전북 농촌유학 사업설명회를 열고 지난 한 달 동안 농촌유학 협력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지역에 농촌유학을 온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 권외 지역 초·중학교 학생이 전북 농산어촌 학교에 1년 단위로 전학해 유학생과 재학생이 협동학습, 생태학습 등의 교육활동을 하는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임실 지사초와 대리초, 완주 동산초와 운주초, 진안 조립초, 순창 동산초 등 총 6개교에서 농촌유학이 진행 중이다. 이들 학교에는 지난 1일부터 가족제류형 12가구 17명, 홈스케이형 4명, 유학센터형 6명 등 총 27명이 배정돼 유학생활을 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에서 10월 한 달 동안 이들의 유학생활을 모니터링 한 결과, 한 유학생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이나 가르쳐준다”면서 “공부를 잘 가르쳐줘서 우리 선생님이나 너무 좋다”고 말했다. 또다른 학생은 “반에 같이 놀 수 있는 친구가 많아 행복하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의 반응도 좋았다. 농촌유학에 참가한 학부모들은 ‘일주

일이 지나니 아이가 놀이를 만들고 나에게 알려준다’면서 ‘이런게 창의성이라고 생각한다’, ‘소인수 발급이나 또래 친구가 많지 않으니 형, 동생들과 놀다’면서 ‘아이가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교사를 통한 ‘아이들이 많아져서 무기력감이 사라지며 수업 연구에 더 매진하게 됐다’, ‘아이들이 꼭 찬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학교에 생동감이 넘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농촌유학이 재학생들에게는 건강한 자극으로 자발적 학습동기가 부여되는 동시에 또래 친구의 증가로 사회성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한 “유학생들에게는 결핍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미래역량이 신장되는 것은 물론, 학생 한 명 한 명 살피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에는 농촌유학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가족제류형은 초~중 27까지, 홈스케이형과 유학센터형은 초 4~중2까지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또 협력학교는 농산어촌에 있는 학생 수 10~60명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다. 운영 기간은 내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다.

한편 도교육청은 12월 중 서울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과 함께 유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농촌유학을 하는 학생들은 전북교육청과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월 체류비와 교육급여, 초기 정착금 등을 지원받는다.

서거석 교육감은 “농촌유학에 참여한 학생, 학부모, 선생님 모두가 만족해하고 있다”면서 “이번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테마가 있는 농촌유학을 운영해 전북민의 색감을 가진 농촌유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대, 9일 지역대학

협업 세미나 개최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오는 9일 전산회관 강의실에서 유·초·중등 교육 연계 강화를 위한 지역대학 협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유치원·초등학교 연계를 통한 리터러시 교육 방안’을 주제로 학교 교육의 연계성 및 연계 이론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전주교대 국어교육과 서현석 교수가 미래교육 아동 학습자를 위한 문식성 교육 방안 탐구를,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 연구위원이 유아교육과 초등을 연계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어떻게 할 것인가? 소주제로 발표가 이어진다.

이어 교대·사대 교수들의 공동 교육이론 연구 방법의 공유, 유·초·중등 교육의 연계를 위한 교육내용 공유를 위한 토론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박병춘 총장은 “유·초·중등교육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1일 도교육청 청주나래 시청각실에서 교직원, 교육전문직원,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전북교육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라보는 미래교육’

제19회 전북교육정책 포럼

지역 특색 살린 교육과정 실현

학습자 맞춤형 교육 필요성 설명

2024년부터 새롭게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미래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전북교육정책연구소(소장 한숙경)은 1일 도교육청 청주나래 시청각실에서 교직원, 교육전문직원,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전북교육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이태원 참가 학생자를 추모하는 목적으로 시작된 이날 포럼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미래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실천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서거석 교육감은 격려사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해 우

리 학생들에게 탄탄한 기초·기본 역량을 기반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과 가치를 함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연구책임자로 참여했던 이화여자대학교 황규호 교수의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미래교육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로 시작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에서는 비전을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으로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지역·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및 책임교육 구현 △디지털·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체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미래교육 방향에 맞춰 패널리스트

포도 이어졌다. 이라동산초등학교 조현정 교사는 ‘지역과 학교의 특색을 살린 학교교육과정의 실현을 위한 학교교육’에 대해 계획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자세히 설명했다.

또 남원사진여자고등학교 이현주 교사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고교학점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교학점제 실현의 가장 큰 어려움은 교사의 피로도 누적에 의한 번아웃이라며, 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의 절실함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산외초등학교 조영상 교사는 ‘디지털·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 체제 구축’을 강조했다.

한숙경 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미래교육의 핵심 내용이 공유되고 이에 따른 실천 과제가 모색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원광대 HK+ 지역인문학센터

20일까지 ‘다카시 공모전’

원광대학교는 HK+지역인문학센터가 오는 20일까지 제1회 익산 다카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다카시’는 디지털카메라와 시의 합성어다. 이는 창작자 본인이 직접 디지털카메라나 핸드폰으로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형상을 포착해 촬영하고 이에 대한 감정을 5행 이내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는 시다.

이번 공모전은 전북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작품 주제인 익산의 자연경관이나 역사·문화 유적과 관련된 작품 1편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고 합성하지 않은 사진과 시적 표현 모두 어디에도 발표되지 않은 창작물이어야 한다.

응모는 원광대학교 지역인문학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region7293>)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20일까지 이메일(region7293@naver.com)로 하면 된다.

HK+지역인문학센터 강연호 센터장은 “직접 우리 지역을 탐방하고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애郷심과 인문학적 소양을 더욱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행사가 역사와 문화 도시로서의 익산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원광대 사범대, 시민교육 동아리 활동 발표회

원광대학교(총장 박병춘) 시민교육사업단은 2022학년도 범교과 시민교육 동아리 활동 발표회 및 시상식을 지난 달 28일 교내 숭산기념관 LINC전시관에서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원광대는 교육부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량강화사업에 2019년 전국 대표대학으로 선정돼 사범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예비교원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범교과 시민교육 동아리는 예비교원들의 존중 자율 연대의 시민적 가치 구현뿐만 아니라 학생체 협동성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과 협동심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함양하고, 학교 현장에서 시민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인성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통일평화교육, 안전·건강교육, 환경·자속가능한 발전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영역으로 구성해 동아리별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있으며, 올해 4회를 맞이한 동아리 활동 발표는 평가위원들이 시민교육의 부합성, 자료 충실성, 시민교육 파급성, 프랜차이즈 감각성, 탐험 활동성 등 5가지 평가 기준에 따라 우수 팀을 선정해 시상하고, 28일까지 전시회를 진행했다.

시상식에서 봉황상은 유아교육과 ‘도담도담’ 동아리가 수상하고, 대상은 중등특수교육과 마노앤마노가 차

지했으며, 사범대학 학생회 임원진으로 구성된 ‘너랑나랑’ 통일교육 동아리가 공동 3위로 금상에 올랐다.

봉황상을 수상한 도담도담 동아리는 깨끗한 물과 위생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불평등 감소를 주제로 과자봉지 퍼즐 병뚜껑 팔레트, 물고기그림책 만들기, 배지 제작하기, 분리수거 놀이 장, 열두 달 환경 달력을 만들고, 일기장 형식으로 유아의 지속가능한 삶을 여러 방면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대상을 수상한 마노앤마노 동아리는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인 영화제를 비롯해 시각적 자 시각장애 그림 체험 꽃피기 만들기 등 직접 체험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개선을 위한 활동성과를 발표해 주목받았다. /익산=이재훈 기자

뉘렌베르크 발명대회 ‘3관왕’

전주대 김동현 교수



실증 평가를 완료했다. 박광호 교수는 “농업 전 과정에서 식생지수 분석 기반 자동 식별과 농약 살포, 수확시

전주대학교는 김동현 교수(소방안전공학과)는 최근 2022 독일 뉘렌베르크 국제발명대회에서 스마트 농업을 위한 무인/자율 농업 드론 스테이션으로 은상을, 스마트 농업을 위한 초실감 소방훈련 헬릭 클러브로 은상과 특별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독일 뉘렌베르크국제발명대회는 스위스 제네바국제발명대회, 미국 피츠버그국제발명대회와 함께 세계 3대 발명대회다. 올해는 코로나 이후 역대 가장 큰 규모인 28개국 500개 이상의 발명품이 출품됐다.

이번 독일 뉘렌베르크국제발명대회 수상으로, 국내 최초 세계 3대 발명대회에서 모두 수상한 패거리를 이뤘다.

특히 김 교수는 발명과 기업 성장을 모두로 전주대학교 교원창업기업인 주식회사 아이팜을 창업, 수상된 기술을 제품화해 산업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은상을 수상한 ‘스마트 농업을 위한 무인/자율 농업 드론 스테이션’은 서비스 플랫폼은 노지 농업에서 벌레 등의 종자 뿌리기 비료 및 영양 살포 등의 작업을 컴퓨터에 입력된 일정에 의해 농업 드론이 24시간 무인자동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농업 드론 스테이션 플랫폼은 1대당 20㎞ 대규모 노지 농업 드론 작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주대학교 김동현 교수 연구팀과 한국농수산대학의 박광호 교수의 공동개발로 농수산대학 내 경작지에서

기와 수확량 예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농약비용 절감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농촌에서 노지 농업의 혁신을 가져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은상과 특별상을 받은 초실감 소방훈련 헬릭 클러브는 2019년부터 수행하는 소방청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실감 기반 첨단 소방훈련 체계 구축 연구’의 성과물로 소방대원의 훈련환경을 초실감 XR 훈련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션인식 기술, 온도과 진동 등 합력제어 기술이 결합된 시스템이다. 2024년 구축되는 소방청 실감 훈련 센터 구축에 적용되어 실제 소방대원의 XR 초실감 훈련에 사용될 계획이며, 소방 분야뿐만 아니라 경찰, 국방, 재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출품을 함께 준비한 주식회사 아이팜의 임명균·이동하 연구원은 “이번 국제발명대회 참여를 통해 많은 국가의 발명제품들과 경쟁하고 교류하면서 산업과 실생활에 이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많은 자국이 되고, 전 세계에서 우리 기술이 쓰일 수 있도록 제품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여전히 빛나는 나, 비긴어게인’

우석대, 10일 ‘취업콘서트’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오는 10일 문화관에서 ‘2022 취업콘서트(ssu) 트-여전히 빛나는 나, 비긴어게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의 우수 기업을 소개하고 멘토링과 컨설팅 등을 통해 취·창업을 준비하는 재학생과 졸업생,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취·창업마당과 예술마당, 소소마당으로 나뉘며, 취·창업마당에서는 기업 인사담당자와 청년창업가, 전문 컨설턴트의 멘토링과 토크콘서트

등이 진행된다.

예술마당에서는 지역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 진로 고민을 소소하게 예술 퍼포먼스가 펼쳐지며, 소소마당은 하 비리움 불륜 만들기 미니호분 제작, KT&G 상상유니브와 함께하는 퀴즈쇼, MBTI를 통한 직무 찾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남천현 총장은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 청년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취·창업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들과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국제교류 세부실행 방안 협의

쉐넌 몽골국립교대 교수, 이장호 군산대 총장 예방

몽골국립교육대학교 한국언어문화센터장인 쉐넌 교수가 양교간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지난 달 31일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을 예방했다.

쉐넌 교수의 이번 방문은 올해 8월 국립군산대학교와 몽골국립교육대학교가 체결한 국제교류 활성화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다.

국립군산대학교와 몽골국립교육대학교는 올해 8월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 강의 및 회의 협력 △ 학자 및 연구자 교류 △데이터, 문서 및 연구 자료 교환 △학점인정을 포함한 학생 교환 △학술정보 및 출판물의 교환 △군산대학교 대학원 과정에 정부초청 장학생(GKS) 추천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 국립군산대학교와 몽골국립교육대학교는 2+0.5(1)+2 프로그램, 새만금 산업단지 기업체 연계 공유전공 등 학생교류방안과 편입학 학과(부) 선택 및 매칭에 대한 실제적 논의를 하였고, 2023년부터 GKS 학생 추천 및 입학 등 양교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 후속조치로 올해 8월 동시에 체결된 몽골과학기술대학교와 몽골농업대학교의 업무협약에 대한



구체적 실행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몽골국립교육대학교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소재하는 대학으로 1951년 설립되었다. 8개 단과대학, 11개 연구센터, 35개 실험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41개 학사과정과 44개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몽골국립교육대학교와의 교류를 통해 국립군산대학교는 HASS대학, ONS대학,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간호대학, 법행정경제학부, 소프트웨어학부, 자율전공학부 등 관련학과(부) 재학생에게 글로벌 역량 강화 및 글로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김관민 기자

손 씻기·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